

The Problem of Time(시간의 문제)

수 세기가 지나면서 예술 작품 제작에 사용되는 물질은 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캔버스에 그려진 작품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 우리들의 조상이 손으로 직접 그렸던 원시적인 그림에도 해당됩니다. 이 같은 퇴화는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며 시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이먼 후지와라 씨는 이 작품을 위해 인공 바위 위에 지역 유치원의 원아들의 손자국을 그렸습니다. 이 바위는 본래 에마(소원을 담아 나무판에 그림을 그린 후 신사나 절에 봉납하는 것)를 장식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인 에마도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방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 에마도에서 대부분의 에마들은 색이 바래지고 말았습니다. 손자국에 사용된 수성 염료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분이 비바람에 노출되면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인공 바위를 통해 영속성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